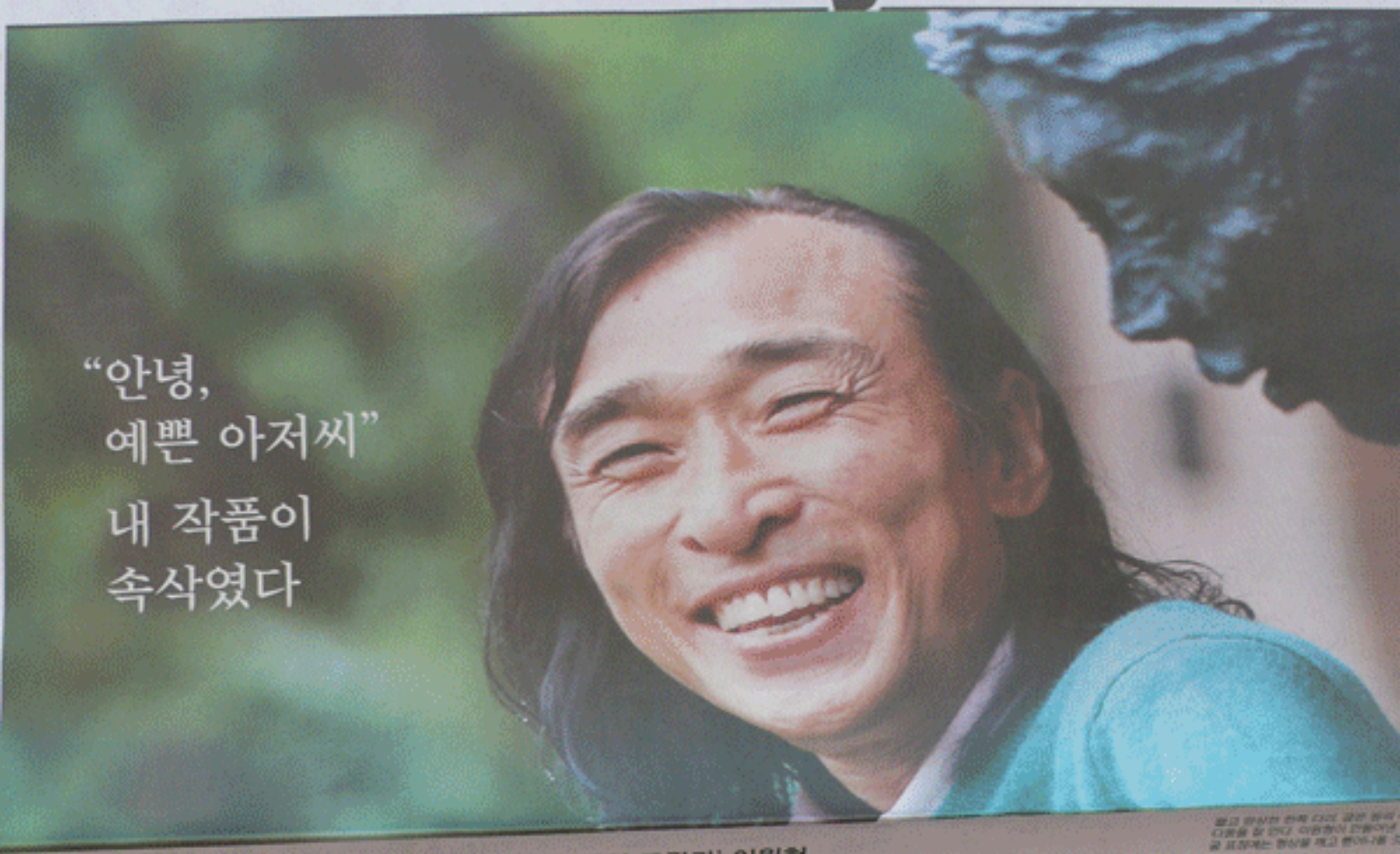
조선일보 土日섹션

Why?

2010년 5월 22-23일 토-일요일



"안녕, 예쁜 아저씨" 내 작품이 속삭였다

문갑식의 하드보일드 세계가 주목한 '천재 장애인 조각가' 이원형

神이 그에게 준 몸

소아마비로 뼈 뒤틀리고
13살 땐 등까지 휘어

재능

작품 年 350개 팔려
캐나다 UBC 대학원 수석
공인회계사로 큰 돈 벌기도

이원형(李源亨·64)의 왼쪽 다리는 남보다 가늘고 짧다. 세살 때 소아마비가 다리를, 그리 만들더니 엉덩이와 허리까지 뒤틀어놨다. 국민학교 6학년 때 뼈까지 휘어졌다. 그의 오른쪽 날갯죽지 뼈는 나비(蝶) 유충(幼蟲)처럼 솟아있다.

곱추처럼 변한 등은 재능까지 숨어있다. 서울중학 입시에서 필기에 붙고도 신체검사 때문에 낙방했다. 서울의대 입시에서 같은 꼴을 당했다. 그 때 그는 희망을 버렸다. 자기 같은 몸을 지닌 이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그 꿈이었다.

그에게 신(神)이 없었다. 좌이(左翼) 아버지는 1·4 후퇴 때 아내와 5남매를 두고 북쪽으로 내뺐다. "빨갱이 가족"으로 불린 삶에 이골이 난 어머니는 미군 건축가와 결혼했다.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.

이 지지리 복 없는 사내의 손이 닿기만 하면 금속이 대합창(大合唱)을 하는 것이었다. "외모는 19세기 꼽추화가 로트레이다. 그런데 이 일그러진 육신이 빚어낸 조각에선 로댕과 자코메티를 만날 수 있다." 소설가 최일옥의 평이다.

한국에서 내쫓긴 조각가 이원형의 작품을 주목한 곳은 영국이다. 아니네가 시골 뒷간에서 뒤면 보는 도발적 형상에 매료된 런던 조각공원 "The Pride of the Valley"에서 작품 두 점을 사갔다. 그 뒤엔 영구보존 조건이 붙었다.

그의 작품은 지금 미국, 캐나다, 영국, 싱가포르, 멕시코, 베트남의 조각공원과 대학에서 볼 수 있다. 다음달 30일에는 "대한민국 국민" 명의로 보내는 광고 독립 50주년 기념 조각이 그의 손으로 완성돼 대통령궁 앞에 설치된다.

"…재료의 맥박이 시작됩니다/그의 되어감으로 공명됩니다/모델과 욕망의 기계는 주위를 멈춥니다/무당의 가락에/육구의 손은 뛰고 해만집니다/작품은 타부의 벽을 잘라나갑니다." (이원형의 작가노트·2006년 2월)

남과 북

—나쁜 아버집니다.

"제가 1945년 생이니 다섯살 때 헤어진 셈이지요.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. 해방 전 증권을 했고 함북 청진에서 청어리 기름 빼는 공장을 운영했다는 것, 6·25 전에 신당동 우체국장을 지냈다는 것도 나중에 형에게 들어 알게 된 이야깁니다."

—어머니는.

"신식(新式) 여성이셨어요. 굉장한 미인이셨어요. 아흔넷인 지금도 얼굴에 그 자태가 남아있어요. 어머닌 아버지가 월북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에 잡아다 넣습니다. 전쟁통에 지하는 대구 외삼촌 댁에 있었어요. 어머니가 경기도 오산의 병장에서 반에 있을 때 편을 보내주셨지요. 그러다 미군 건축가를 만나 재혼했습니다. 이름이 에니어리고—. 제가 열두살 때 에니어가 본국으로 철수했어요. 어머니는 그를 따라갔어요."

—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.

"어머니는 한국에 대한 꿈도 같은 게 있었어요. 당시 미국에 갈 때 절차가 복잡했어요. 가명(假名) 여권을 만들어 일본 도쿄로 갔습니다. 본명이 홍홍순이었는데 가명은 홍홍순의 한자(漢字)만 바꾸어 비슷하게 만들었지요. 새 아버지 성을 따라 이원형이 된 거지요. 제 이름은 원형(原亨)이지만 원형(圓形)이라고 불렀어요. 제가 원형이라고 불렀어요. 제가 원형이라고 불렀어요. 제가 원형